신당 '합의 추대-경선' 대립 고조

오늘 중앙위원회 새 지도부 선출방식 결정

물밑 접촉 타협안 못 찾아 내분 격화 위기

대통합민주신당이 7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방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합의추대파와 경선파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의 내분이 더욱 격화되는 것은 물론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선출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물밑 협의 결과 새 지도부 합의 추대 방안과 경선 실시 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앙위에서의 제한 경선 방안이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당내 세력 분포로만 보면 합의추대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정대철 상임고문 측은 경선 실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손학규-정대철' 공동대표제를 절충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의추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중앙위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단일대표 합의추대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합의 추대를 주장하는 전남지역 모 의원은 "중앙위에서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선출방법이 결정되면 표결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며 표결 강행 입장을 나타낸 뒤 "정 고문이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정치적으로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공동대표 추대 제안을 일축했다.

이에 반해 정대철 고문 측 인사는 "386그룹 등이 손 전 지사 합의추대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면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중앙위 회의 자체가 결렬로 갈 수 있다"며 일전불사를 선언했다.

여기에 경선을 주장하는 정대철 고문 측에서는 표결로 합의추대가 결정되더라도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태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 합의도출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당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 참패 뒤 지지율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각 계파 의원들이 서로를 용인하며 함께 가야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번 당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당내 갈등을 계기로 통합신당의 분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 해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며 "한마디로 내우외환 국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신당 '공천 혁명' 기폭제 될까

대통합민주신당 김한길 의원<사진>이 6일 정계은퇴 및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여권 진영에 일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전격적인 기득권 포기 결단은 여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공천 혁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열린우리당 핵심 그룹 및 강경 친노 세력, 당 지도부에 포진했었던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설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하는 심정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계은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다시 정치에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의원의 전격적인 정계은퇴 및 불출마 선언은 신당 내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인적쇄신 대상으로 거론돼온 일부 중진 의원과 친노그룹 및 386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면서 나아가 공천혁명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6일 오전 광주를 방문, 지지자 300여명과 함께 무등산을 오르고 있다. 손 전 지사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광주시민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뼈 깎는 쇄신만이 신당 살 길"

손학규 前 지사 광주 방문 무등산 등반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6일 "지난 대선에서 처참한 패배를 겪은 대통합민주신당은 환골탈태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총선에서 국민이 다시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당의 새 지도부 구성 방식을 결정할 중앙위원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광주를 방문, 유선호 의원과 선진평화연대 회원 등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무등산을 등반하며 "그토록 큰 패배를 할 줄은 몰랐다. 우리가 국민의 뜻을 너무 몰랐다"고 반성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뜻을 얻지 못한 데 대해 (신당은) 많은 생각과 성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쇄신은 포장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고 속을 뒤집어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이 있으며, 이는 바로 국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진보적 가치"라며 "야당은 이 같은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당내 일부 세력을 겨냥해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못 놓고 내 몫만 챙기겠다고 싸우면 국민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변화에 앞장서 온 광주시민들이, 신당의 쇄신과 변화의 바람을 이곳 광주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 전 지사는 천제단에서 기원제를 지낸 뒤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나라 '공천시기 갈등' 확산

親朴측 "특사는 특사, 공천은 공천" 공세 강화

박근혜 전 대표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중국특사 수락에도 불구, 한나라당내 친이(親李)-친박(親朴)계간 공천 시기를 둘러싼 갈등이 6일에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박 전 대표의 중국특사 수락이 공천 갈등을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박 전 대표 측 내부에선 특사 거부 기류가 강한 가운데 수용하더라도 '특사와 공천은 전혀 별개'라며 '공천투쟁'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특사 자체를 반대하는 친박(親朴) 인사들은 당초 휴일인 이날 박 전 대표를 만나 특사직 수행을 만류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로 볼 때 박 전 대표가 특사를 맡더라도 이 당선인 측의 공천 공격에 대해 반격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과 박 전 대표의 측근들은 공천 시기를 놓고 이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 당선인의 측근이자 공천 실무작업을 총괄하는 이방호 사무총장이 "현역의원 중 최소 35~40% 이상은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데 대해 박 전 대표 측에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실무자에 불과한 사무총장이 계파가 어떻니, 물갈이 대상 비율이 얼마니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며 "권리를 침해당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를 좌시한다면 실세 사무총장 눈치를 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물갈이 비율을 정해놓고 공천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면서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40%를 물갈이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공천을 하다보면 친박 인사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친이 인사들이 배제될 수도 있는데 박 전 대표 측은 왜 자신들만 안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지 모르겠다"며 '피해의식'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기획단 구성을 보고하고, 15일께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기획단에서 여론조사 문항조율 및 지역실사 등 공천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보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월말쯤 공심위를 구성, 2월 한달간 공천심사를 한 뒤 3월초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기존 3월 공천 발침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YS 팔순 잔치 민주계 대규모 회동 "이명박 당선인도 초청"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80회 생일을 맞아 옛 민주계 인사들이 오는 11일과 14일 잇따라 대규모 회동을 갖는다.

'상도동계'로도 불리는 이들은 97년 대선 패배 이후 구심을 잃은 채 서로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이 10년만의 정권교체를 맞아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김 전 대통령의 팔순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 당시 공천을 받았던 전·현직 의원들과 전직 각료들을 중심으로 생신 당일인 11일 축하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김 전 대통령이 전폭적 지지를 보낸 이명박 당선인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당선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대선 와이오밍 경선 공화 롬니 승리

2008년 미국 대선 와이오밍주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승리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틀 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 사흘 전인 5일 실시된 와이오밍주 공화당 코커스에서 선거인단 12명 가운데 8명을 확보, 낙승을 거뒀다.

전체 선거판도를 좌우하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선거전 사이에 끼어 전체 경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와이오밍주 코커스에는 아이오와주를 거머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존 메케인 의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유력 후보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롬니에게 이날의 첫 승리가 미국인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알 수 있는 뉴햄프셔 선거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아이오와의 패배를 딛고 재부상할 수 있는 동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